

이렇게 들었다

이중기 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이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일은 변호사가 검찰 법원 경찰 관계자들에게 알선 사례비를 주고 사건을 수임한 전형적인 법조비리사건이다.

법조계의 오랜 비리관행과 그물망식으로 뻗어있는 비리구조는 우리의 법질서 의식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가장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할 법조계가 오히려 가장 부패한 집단 중의 하나라는 사실 앞에서 어떤 국민이 법을 준수하고 법의 정대를 공경한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다.

법은 미명하고 공정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법도 바로 이런 이치다. 법과 관련한 경전말씀을 들어보자.

〔법집지 주〕

■ 다만 바른 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라. 부디 치우치거나 억울하게 하지 말라. 온 나라 안에 법 아닌 것이 행하지 않게 하라. <유행경>

■ 나라의 중신(重臣)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사리만 생각하고 부지런히 뇌물을 쟁기면 나라의 기강이 급속히 무너진다. 백성이 서로 속이고, 강자가 약자를 때리고, 귀족이 서민을 학대하고, 부자가 빈자를 착취해도 법의 제재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지고 혼란이 극에 달한다. <대삼채니건지소설경>

■ 아난다, 너는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임을 가지고 바른 일을 서로 의논하여 품소 지킨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느냐. 밧지국의 임금과 신하가 화목하고 뒷사람과 앞사람이 서로 공경한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밧지국 사람들이 법을 받들어 삼가해야 할 것을 알고 예의를 어기지 않는다고 들은 일이 있느냐. ...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이 일곱 가지 법을 실행한다면 어떠한 적도 그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유행경>

■ 대왕이시여, 왕 중의 왕을 전륜왕이라 합니다. 이 법왕의 통치는 칼과 몽둥이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법에 의지하여 덕을 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므로 모든 악으로부터 항복을 받습니다. <대삼채니건지소설경>

■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많은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것을 바른 생활이라 하는가? 무리하게 구하지 않

법(法) 준수 법답지 않은것 따르지 말라

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사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되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이라 말한다." <중아함경>

■ 많은 도리를 배웠어도 방일해서 바른 행위를 좇지 않는다면, 목동이 남의 소를 세는 것 같은 뿐이다. <출요경>

■ 수행에 먼저 자신을 바로잡은 다음에야 남을 바로잡을 수 있다. <법구경>

■ 부처님께서 마투라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전륜성왕의 바른 법은 무엇인가? 법에 의지하여 법을 세우고 법을 갖추어 공경하고 존중하라. 법으로서 여자들을 가르치고, 법답게 왕자나 대신, 관리, 백성, 수행자 등을 보

호하고 살피라.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물어 본 뒤에 깊이 생각하여 당연히 행해야 할 것은 행하고, 버려야 할 것은 마땅히 버려야 하느니라. 또 나라의 옛법을 함부로 고치지 말라. 정법으로만 나라를 다스릴 것이며 치우치거나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나라안에 법 아닌 것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라. <장야함경>

■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아사세왕이 부모를 해치고 임금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임금이 정치와 교화를 바른 도리로서 하지 않으면 대신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할 것이고, 대신들이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왕의 태자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될 것이며, 태자가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신하와 관리들도 법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 <중아함경>

제언 포교사제도 강화해야



김진홍 포교사 경찰포교회장

포교사라 함은 '포교를 담당하는 승려 및 재가자'를 말하며, 포교의 목적은 '불타의 교법을 널리 선포하여 중생을 교화하고, 지혜와 자비의 정신을 구현하여 불교토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출가 스님들은 수행정진, 종단과 사찰운영 및 포교를 겸하고 있어 포교에 대한 집중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어 재가 포교사의 필요성은 절실한 현령이다.

더욱이 전문화되고, 정제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각 분야의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춘 재가불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포교사를 양성하고, 기존 포교사에 대한 연수교육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체제의 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나서는 포교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톨릭과 비교해 보더라도 스님은 2만9천여명인데 비하여 목사는 10만여명으로 거의가 모두 선교 일선에 활동하고 있는 반면 스님들은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경찰포교의 예를 든다면, 경승은 5백80여명인데 비하여 경목은 1천2백여명이고 또 그 지원세력인 교정협의회 회원 2천8백여명이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 불교쪽은 그렇지 못하다. 어떻게 개살한 법당도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있다.

또한 군법당은 육·해·공군 합쳐서 7백여동이나 군승은 1백17명밖에 안되어 포교사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허약하기 그지없는 청소년, 일반 직장, 교도소, 사회복지, 농어촌, 관광객 안내 등의 포교와 사찰 신도관리 등에 대하여도 포교사들의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단에서는 포교활동 강화를 위한 역량있는 포교사단 조직강화는 물론 포교사의 교육, 포교자료 및 정보자료의 적극 지원체제 유지로 명실공히 출·재가포교사가 양 축이 되어, 사회 구석구석 골고루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진리를 널리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토 건설이 앞당겨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조계종사태로 상처를 입은 많은 불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빠르게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스님들까지 줄서기 문중보다 수행 우선

처음 강원에서 공부할 때는 새우 강도 먹지 못했다. 어쩌다 좋아하는 자장면이라도 먹으려면 고기를 빼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전설이 되어버린 걸까.

조계종에 들어와 살다보니 문중이라는 현실속에서 돈받고 힘있는 은사를 모시고 살아야만 스님노릇하기 편안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놓고 할 수 있다.

선방에 방부들러 해도 '줄'이 필요하고, 조그만 암자라도 얻어 살려면 결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깃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말법이고, 말법비구가 아니겠는가.

대승이 무엇인가. 고기먹고 술마시는 것이 대승인가. 대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그것은 바로 위로는 보리도를 이루고 아래로는 중생을 보살피라는 가르침이다.

모든 스님들께 당부한다. "속가의 논리를 버리고 부처님의 계율대로 살아갑시다."

탄야<스님, tanya@chollian.net>

독자의 소리

'스님' 호칭 사회적 약속 스스로 존엄성 지켜야

가끔 일간신문 독자에게 스님 호칭에 대한 의견이 실린다. 스님은 존칭이나 '종' 또는 '승려'로 표기하거나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적인 약속이며, 사회적인 현상이다. 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존칭을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스님이 존경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많은 사람들이 스님이라고 부르니 일상화되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억지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발상은 자연스런 현상을 거스르는 것이다.

스님들의 위상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종'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오는지 안타깝다. 불자들이 스스로 불교와 스님들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혹 비판이 비난 일색으로 치닫는 것

다른사람 피해 없도록 돈요구 기치로사 고소

지난 해 12월 23일자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란에서, "기치로사라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영가의 병이라며 귀가 잘 들리게 해준다고 1백만원을 가져오라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중단을 맞았습니다"라는 내용을 보았다.

내가 보기에 기치로사라는 사람은 분명 사기꾼인 것 같다. 따라서 그 기치로사를 고소하도록 권하고 싶다. 그 사람이 귀를 듣게 해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기에 해당한다.

만약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 기치로사는 계속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사기질 것이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봉사이고 자비정신의 실천이다.

지금 나라와 가정의 살림살이 어

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때일수록 불교계는 과소비를 추방하고 호화사회 풍조를 막기 위해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스님들은 그 실천의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박윤경(서울 관악구)

현대불교를 읽고 '한국불교 이것부터...' 시의적절한 캠페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집시다' 시리즈에 관심이 많다. 50개의 주제를 선정하고 매주 점검하겠다는 기획의도가 시의적절하다. 또 주제를 선정하며 사부대중을 참여시킴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킨 것도 좋았다.

13일자 '사찰재정 비공개'의 내용 가운데 "주지스님만이 사찰수입의 규모를 안다"는 한 스님의 발언은 충격적이었다. 사찰재정이 공개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포교, 교육, 사회사업은 얻어도 별 수 없다. 모든 일에는 돈이 뒤따른다. 돈이 모자르고, 모인 돈이 목적이 아닌 사업에 쓰여져야 기대하는 성과를 바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좋은 기획임에도 지면이 너무 작아 불자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만큼 대안까지 제시하기에는 힘겨울 것 같다. 재정운영 현황을 지적하고, 재정을 공개 운영하는 곳의 예를 들었다.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은 누구든 동의한다. 이제는 대안의 제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면의 확대를 바란다.

오영근(서울 서대문구)

목탁 소리

정성운 <취재1부 차장대우>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다시 관심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 새 회장 선출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회칙에 따라 3월이면 회장 임기가 끝난다. 따라서 당연히 대의원총회를 열어 새 회장을 뽑아야 한다. 그러나 회장 선출임이 능사가 아니다.

97년 3월 임기 2년의 초대회장을 뽑으면서 출범한 중앙신도회가 '회장 사퇴' '회장직무

다시 기로에 선 '중신회'

대행 적법성 논란' 등 내용의 아픔을 딛고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리라,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기로에 선 것이다.

중앙신도회가 출범하면서 교구본사와 말사 신도회 구성 등 조직사업에 역점을 두려 했으나, 총재직 당시 회장의 돌연한 사퇴와 이후 회장직무대행 적법성 논란으로 야기된 내용을 겪으며 추진하지 못했다. 이사 임명에 총무원과 회장단의 의견이 맞지 않아 3개월이나 걸린 예도 있었다. 신도교무국을 중앙신도회 기금으로 써야 한다는 중앙신도회의 요구에 총무원이 거절하며 양측에 깊은 골이 패이기도 했다.

현재 선암사를 제외한 24개 교구본사마다

교구신도회장은 있다. 그러나 신도대중에 총의에 의해 선출된 곳은 없다.

주지스님의 임명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다보니 "1년에 몇 차례 있는 사찰행사에 일괄내릴 정도가 회장의 역할"이라는 말도 나온다. 말사 신도회 구성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 종단에 등록된 신도단체도 회원으로 구성토록 돼 있으나, 중앙신도회에 참여한 신도단체는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새 회장 선출과 함께 중앙신도회의 뿌리인 사찰신도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또 각종 직장·직능단체의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swjung@buddhopia.com)

회천장날엔 안끓는다' 자비 실천 감동 기사

'회천장날엔 안끓는다'는 기사를 읽었다. 밥 한끼 나누는 게 무슨 대수 일까마는 말처럼 힘겨웠다. 장날마다 스님들이 노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밥은 불교에서 무엇이냐'는 것은 불교로 변하는 것 같아 보기 좋았다.

뜻이 있어도 1개 사찰 단위에서는 재정적으로 넉넉치 못하고, 일을 이룰 사람도 많지 않다. 각 지역의 사찰연합회가 최소한 하나씩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올리는 실천해보자. 현대불교신문이 지방 곳곳의 스님들 소식을 전하는 것도 반가웠다.

김성명(강원도 속초)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4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한국불교사·유식사상·경토사상 반야사상·법화사상·화엄사상·불교사회복지론	·무진상스님(본대학학장) ·남수영(동국대학교수) ·계환스님(동국대학교수) ·김상현(동국대학교수) ·표주신(동국대학교수) ·장휘욱(동국대학교수) ·박종(불교개발연구원) ·권만준(동국대학교수)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선종사상·불교미술·입교사상·포교방법론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불교상담론	·암도스님(교육원장) ·권기중(동국대학교수) ·혜원스님(동국대학교수) ·윤영수(동국대학교수) ·홍석남(승가대학교수) ·한정선(금강선원학사장) ·최봉수(동국대학교수) ·주명철(동국대학교수) ·정병조(동국대학교수) ·오국근(동국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자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증본 1통 ·비밀정관사본 3매	98년 12월 15일~ 99년 2월 5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회관 및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 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학일시

1999년 2월 6일(토) 오후 6시 (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보림각(조계사앞) ☎ 02)733-0333
- 대구: 상영불교서림 ☎ 053)425-4097
- 광주: 불일서점 ☎ 062)232-7542
- 부산: 불서보급사 ☎ 051)246-4321
- 대전: 보문서점 ☎ 042)257-0161
-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불교대학

한국불교교육대학 신입생 편입생모집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로 자신과 진리를 깨달아 중생을 제도해야 합니다. 본 대학은 초·중·고·대학으로 20여년간 수백여명 포교사 법사와 승려를 양성한 실력과 전통으로 다음과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

과정	수업년한	졸업후특징
대학	2개년	포교사 품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추천
대학원	2개년	출가 희망자는 대학과 연관된 종단 승려로 득도
삼장법사	2개년	삼장교법사 품수, 국내외 포교원 사찰등 개설시 주지, 원장으로 임명

· 본 대학 교양대학과정은 6개일코스로 수시입학 접수함.

입학자격과 절차

해당과정에 실력 있는 불자는 성별 나이 구분없이 누구나 입학 할 수 있음. 편입생은 타 불교대학에서 해당 년한을 수학한 자.

- 1) 본대학 소정 입학원서 및 심사카드(사진 4매 첨부) 각 1통.
- 2) 주민등록 초본 1통
- 3) 편입생은 타 불교대학 수학 증명서 1통

입학절차는 우편으로 신청 접수. 가까운 분은 본 대학에 직접 접수가능

원서접수와 교육제도

- 원서접수는 1999년 2월 10일까지. 서류 심사후 합격자는 개별통지 함.
- 1학기(6개월)당 교재비 12만원 학비 부담. 특강, 스물럼 동산 교재 교육.
- 지역 학생을 위해 서울 대구 부산 등 3개 분교에서 특강 교육을 함.
- 부산분교 석림정사에서 매월 2회 4회 일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정기적으로 특강이 있음으로 입학전이라도 수시 특강 받을 수 있음.

한국불교교육대학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2동 366-146 전화 02) 821-0541,2 FAX 02)821-0543

부산분교, 釋林精舍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1동 705번지 전화 051) 581-4111,582-4110

● 석림정사 오는길 ▶ 부곡시장 하차 ▶ 부곡1동 사무소앞 ▶ 부곡여중앞 ▶ 보덕사뒤